

대청오솔길도 흙길(마사토)로 보존해 주세요!_강변·대청 오솔길 등 시설녹지 정비공사에 대한 민원

민원 요지

- 헌법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근거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싶습니다.
- 일원1동 주민들은 흙길을 걸으며 휴식하고 자연을 통한 안식과 치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 청담동 ‘강변오솔길’은 친자연적인 마사토 흙길을 조성하려하지만, 쓰레기 소각장이 인근에 있는 일원동 ‘대청오솔길’은 유해물질의 화학성분이 함유된 우레탄길을 조성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최근 경북교육청, 세종시교육청등에서 학교에 깔려있는 우레탄트렉에 중금속과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발견되어 교체작업을 하였습니다.

【첨부1】 경북교육청, 유해물질 검출 8개교·친환경운동장으로 교체

- 일부 주민들의 민원(수서아파트 주민 720세대)이 전체 의견으로 간주하고 진행하는 사업을 중단하고 흙길 조성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대청오솔길 주 이용자인 SH수서1단지 2,214세대 및 일원1동 주택가 주민 의견 미수렴

- 사업 시행 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대청오솔길 일부 구간을 수년 전에 우레탄 포장 실시하였는데, 현재는 냄새 등 혐오스러운 길로 변화하였습니다.

【첨부2】 대청오솔길 일부 구간(수년 전 우레탄 포장)

【첨부1】 경북교육청, 유해물질 검출 8개교·친환경운동장으로 교체

이성희 과장,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비로 11억4900만원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예정”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01616373944959>

경북교육청은 인조잔디 운동장과 우레탄 운동장 탄성포장재 유해성 검사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8개교에 대해 친환경운동장(마사토·천연잔디운동장)으로 교체한다고 16일 밝혔다.

친환경운동장 조성계획에 따라 지난 8~9월 최종검사일 후 3년이 경과한 85개교를 대상으로 탄성포장재 유해성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8개교에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비로 11억4900만원을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다.

▲마사토 운동장으로 조성된 학교전경©경북교육청

또한 지난해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59개교 중 기존 공사 등으로 인해 운동장 사업이 늦어지는 2개교를 제외한 57개교는 올해 내 친환경운동장으로 교체를 완료 할 계획이다.

이성희 체육건강과장은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학교에 대해서 친환경운동장으로 조속히 교체해 학생들의 체육활동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아울러 3년마다 유해성검사를 실시해 유해물질 초과 검출교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운동장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북교육청, 유해물질 검출 8개교·친환경운동장으로 교체

이성희 과장,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비로 11억4900만원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예정”

박종근 기자(=경북) | 2020.10.17, 04:43:34

경북교육청은 인조잔디 운동장과 우레탄 운동장 탄성포장재 유해성 검사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8개교에 대해 친환경운동장(마사토·천연잔디운동장)으로 교체한다고 16일 밝혔다.

친환경운동장 조성계획에 따라 지난 8-9월 최종검사일 후 3년이 경과한 85개교를 대상으로 탄성포장재 유해성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8개교에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비로 11억4900만원을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다.



▲마사토 운동장으로 조성된 학교전경©경북교육청

또한 지난해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59개교 중 기존 공사 등으로 인해 운동장 사업이 늦어지는 2개교를 제외한 57개교는 올해 내 친환경운동장으로 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성희 체육건강과장은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학교에 대해서 친환경운동장으로 조속히 교체해 학생들의 체육활동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아울러 3년마다 유해성검사를 실시해 유해물질 초과 검출교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운동장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첨부2】 대청오솔길 일부 구간(수년 전 우레탄 포장)

